

**RAONATTI 4<sup>TH</sup>(FORCE)**

**IN THE PHILIPPINES**

**- OCT.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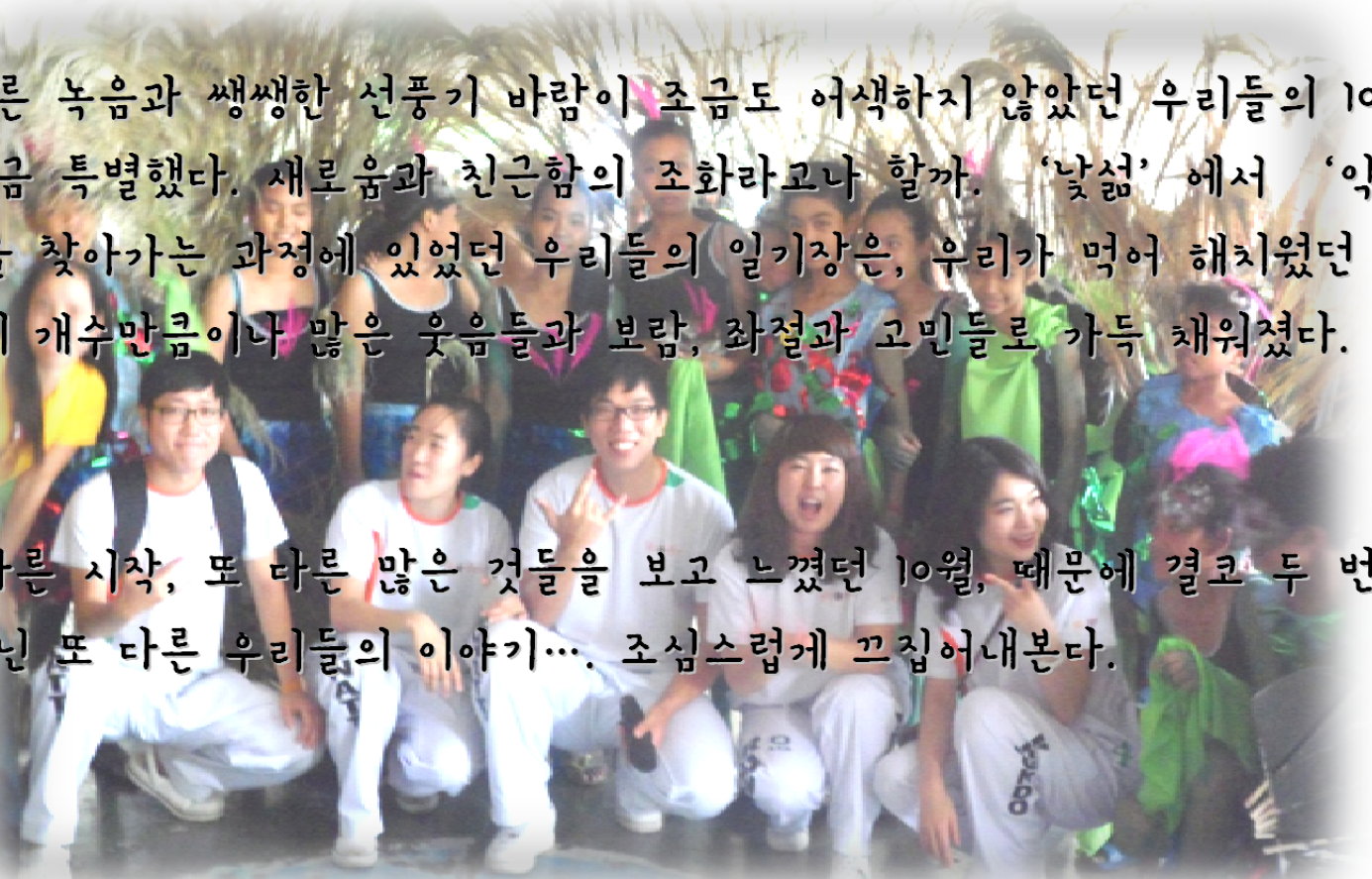
사전상의 의미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듣기에 어감상 미묘한 차이가 나는 말들이 있다. ‘참가’와 ‘참여’, ‘변했다’와 ‘달라졌다’. 따분한 언어학교 양수업에나 등장할 법한 이러한 이론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깃거리다.

단순히 Community의 정해진 틀 안에서 ‘참가’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함께 속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웃는,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이곳 생활에 맞춰 생활방식이 단순히 ‘변할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질수’ 있는가? 남은 4개월여 동안,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해하고 마침내는 이들과 같은 Community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평범한 일상에 젖어 살던 예전엔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린 이미 ‘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푸르른 녹음과 쌩쌩한 선풍기 바람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10월은 조금 특별했다. 새로움과 친근함의 조화라고나 할까. ‘낯섬’에서 ‘익숙함’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우리들의 일기장은, 우리가 먹어 해치웠던 파파야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웃음들과 보람, 좌절과 고민들로 가득 채워졌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던 10월, 때문에 결코 두 번째가 아닌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본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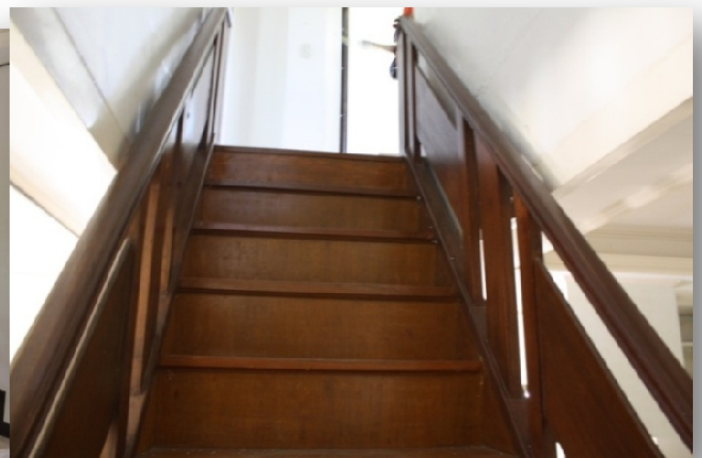
1. **House moving**
2. **D.C.C Class**  
(Paper art, Singing, Painting, Science kit)
3. **Tae-kwon dance Class**
4. **Discussion**  
(Sense of activity, Parents organization)
5. **105<sup>th</sup> founding anniversary**  
of Nueva ecija high school
6. **BRGY. Election**
7. **Physical activity**
8. **Language Class**
9. **Looking back...**

# 1. House moving

9월 10일. 우리가 바랑가이 kapitan pepe 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 우리 다섯명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넓이, 절대 혐오스럽지 않은 도마뱀, 5초에 한번씩 눈에 띄는 바퀴벌레, 광활한 공동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 한 켠에 자리잡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3기 단원들의 캐릭터... Kuyamatt, oran, Ate young, nina, gabi. 모두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듯 했다.

그들의 울고 웃었던 5개월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곳을 우리는 떠나야 했다. 숙소가 새 주인을 맞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10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1층 단독주택이었던 Kapitan pepe와는 달리 이곳은 다세대 주택이다. 2층의 건물에 약10~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건물의 왼쪽 가장자





리 1층과 2층을 쓰게 되었다.

이전 숙소보단 좁지만 깨끗했고, 벌레와 소음이 적었다. 평소 선비로써 사색을 즐기는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인 테라스까지 2층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수많은 고민들과 번뇌로 바람 잘 날 없을 테라스, 4개월간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곳엔 이웃도 많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저녁마다 운동하시는 영국인 할아버지 제프리 씨, 한국 농구선수 이름까지 줄줄 꿰고 있는 농구 광팬 아저씨 쿠야 타테, 시간장소 불문, 항상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Tricycler 쿠야 제이슨, 배드민턴 꾀나무 구몬, 자레드, 리콜...

낯선 환경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 우리,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보다는,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더 많은 웃음과 이야기로 우리들의 가슴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닐는지.

## 2. D.C.C Class

(Paper art, Singing, Painting, Science kit)

이곳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우리들의 주된 임무가 있다면 바로 D.C.C Class다.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아트와 댄스 등을 주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갖는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 역시 D.C.C Class는 계속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들과 매일매일 만나면서 쑥쑥 자라나는 친밀감과 D.C.C에 대한 익숙함이랄까. 수업이 끝날 때쯤, 아이들과의 사투(?)로 진이 빠



지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 수업이 기다려 진다는 것이다!!!

수업이 거듭되면서 체계와 틀이 잡혀가는 듯하자 우리는 보다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종이접기를 택했다. 비행기와 배, 공 등을 접어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 작품을 D.C.C의 한쪽 벽에 전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취학 전의 아동이라 쉽게 따라 하진 못했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끄끔대며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다.



한편으론 철 지난 교과서의 한쪽 귀퉁이를 과감히(?) 찢어 비행기를 만들던 필자의 초등학교 시절이 아련히 떠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를 수업에 응용하기로 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여유롭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있는(?)집이라면 집집마다 노래방기기가 갖춰져 있을 정도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쿵 이까와 마사야, 꾸마와 까~♪♪’ ... 우리나라의 노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짹!’ 과 음이 똑 같은 Tagalog Song을 배워보기도 하고, 또 한

국 드라마 ‘플 하우스’ 로 유명한 곰 세마리 송을 Korean, English version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 율동과 함께 불러보기도 했다. 역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기저기 흠어져 교실을 누비며 장난을 치다가도, 우리가 노래를 시작할라치면 어느 새 자기자리로 돌아와 준비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고들 하는 우리나라. 노래 부르는 것도, 즐기는 것도 ‘적당히’ 했으면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긴 이곳 사람들에게겐 이것 또한 ‘적당한’ 것이리라.

한편, 노래로 불러본 곰 세마리를 직접 색칠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색칠하기는 평소 이곳 아이들이 많이 하는 수업이라 곧잘 했다. 다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양한 색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갖가지 옷을 입고 있는 곰을 전부 같은 색으로 칠한 아이, 심지어 곰 세마리를 같은 색으로 칠한 아이까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Ate Bona가 특별히 공수해온 나비피리 만들기는, 피리가 너무 신기했던지 대책 없이 붙어대던 아이들 때문에 우리들의 귀가 멍멍해졌을 정도



로 좋아했다. 심지어 자신의 피리를 잃어버린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우리가 가져간 수량이 한정돼 있었기에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웠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헤어지는 시간, 다시 일상으로 해맑게 돌아가는 그들을 보며 허전함을 느낀다. ‘안분지족’.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찾아볼 수 없어 때론 안타깝다.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주워담으면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과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3. Tae-kwon dance Class

9월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들의 Class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월, 수, 금 오후 Language class가 끝나고 나서 YMCA 근처에 있는 Compound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T.K.D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우리는 YMCA 근처를 돌며 수업에 참여할 아이들을 모집했다.

우선 모집 포스터를 만들어 바람가이 이곳 저곳에 붙이고, 아이들이 자주 찾는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돌며 홍보에 나섰다. 다들 ‘Koreano’ 를 외치며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태권도의 동작을 손수 해 보이며 관심을 표시하는 열성(?)팬들도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는 셈이지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 장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 4. Discussion

(Sense of activity, Parents organization)

대화는 중요하다. ‘대화가 필요해’ 라는 모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오해를 잠재우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순환 유 같은 존재다. 특히 언어가 달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곳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록 그것이 서툰 영어로 나누는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일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Kuya morito는 우리들에게 이곳 생활에 대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

한 우리들을 위해 Kuya는 이곳에 오기 전(Before)과 이곳에 온지 한달 쯤인 지금(After)으로 나누어 설명해줄 것을 제안했다.



느낀점이라... 막막했다. 단순히 '재미있다, 새로운 경험이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릴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새롭고, 그러한 경험들이 각 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거기에서 느끼는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우리들 앞으로 Kuya가 종이 한 장씩을 내밀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중에서 딱 2명만 고를 수 있다. 이곳에 오기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기자신이다.

우리 5명의 선택은 모두 달랐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어깨동무 하고 있는 사람, 저기 한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등돌리고 있는 사람 등 저마다 생각들을 그림 속의 사람들에게 투영했다. 그런 다음 각자 고른 그림들을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발표를 Kuya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꼭 필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평소 저녁시간 우리들은 쿠야 모리또와 함께 활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특히 우리들의 주된 활동장소인 Valle Cruz는 주 관심사다. 특히 쿠야는 우리가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지 궁금해한다.

그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느낀 짝막한 소감들을 잠깐 엮보기로 하자.

**쿠야 윤,** 먼저 인사하지 않아도 ‘아뇽하세여’ 라고 웃는 사람들, 활달한 성격인 나조차도 많이 보고 배운다. 그들을 만나면 항상 즐겁다.

**아띠 보나,** 그곳 사람들은 항상 밝고 친절하다. 그리고 더워서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살을 빼서 가고 싶다.

**아띠 수,**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아이들이 항상 밝게 웃으며 ‘아띠 수’ 라고 활기차게 불러줄 때 언제나처럼 나도 모든 피곤함을 잊곤 한다.

**아띠 에스더,** 나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팀원들을 위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점차 희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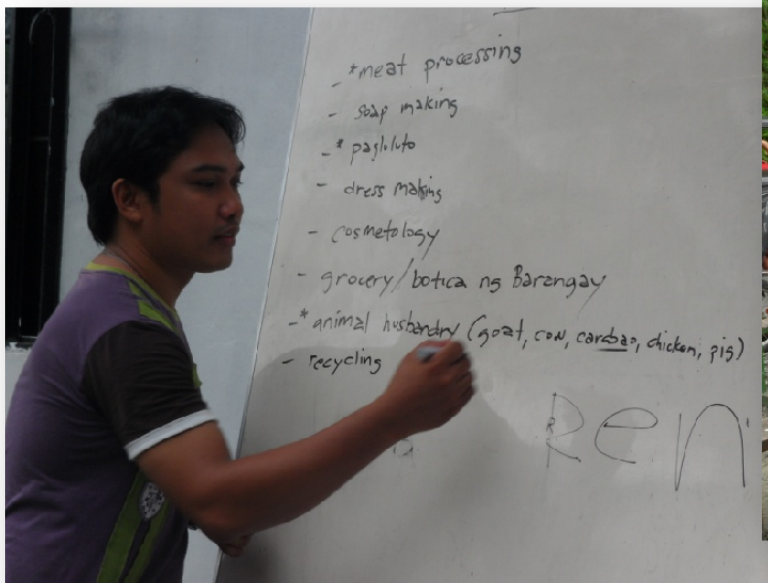
**쿠야 민,**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 잣대들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다. 항상 그들은 만족하고 즐길 줄 안다.

25일부터 일주일간 D.C.C Class가 없다. 일종의 방학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Valle cruz 에서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직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활동은 비단 방학기간 동안만 아니라 앞으로 주말 등을 이용해 간간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활동의 시작으로 우리는 Valle cruz의 학부모들과 첫 미팅을 가졌다.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화 시켜나갈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회의가 Tagalog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진행되는 중간중간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비누 만들기, 육류 가공, 동물 사육, 액세서리 만들기 등 그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들 곁에서 각종 홍보활동과 아이디어 뱅크를 담당하게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되길 바라본다.

## 5. 105<sup>th</sup> founding anniversary Of Nueva ecija high school

10월 18일. YMCA의 멤버이자 Nueva ecija high school의 선생님께서 계신 Sur Pangginin의 초청으로 우리는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1895년 설립 이래 무려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답게 행사라기 보단 2박 3일간 열리는 축제에 가까웠다.

행사의 첫날, 첫 순서인 팀 댄스 경연에 앞서 태권무와 사물놀이, 팝송 등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했고, 약 300여명의 학생들과 스텝들이 내뿜는 열기에 압도당했다. 그 열기만큼이나 우리들에 대한 호기심 또한 뜨거웠고, 덕분에 우리는 연신 그들이 내미는 카메라 앵글의 모델이 되어야만 했다.





이런 그들의 요청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엔 마치 우리가 연예인이 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지만, 그래서 들뜨기도 했지만,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만 갖는 것 같아 아쉬웠다. 우리들을 그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기 보단, 그저 잘사는 나라에서 온, 낯선 이방인이라 여기는 듯했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우리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기존에 해왔던 태권무와 사물놀이는 그대로 하고, 이곳 사람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팝송, 'My love (Song by West life)' 를 Ate esther의 건반 연주에 맞춰 불렀다. 역시 친숙한 팝송이라 반응이 뜨거웠다. 건반 연주가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온 함성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의 공연이 좋아서, 혹은 이곳 사람들이 원래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고 웃어주었다는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Sur Pangginin 특별히 마련한 식사자리를 위해 교무실로 이동했다. 아침 일찍 이동한 우리들을 위해 간단한 스프와 삶은 계란, 필리핀 전통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영광이자 활력소다. 태권도복의 왼쪽 가슴팍에 새겨진 태극기를 가르키며 'Koreano'라 외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노바디' 뿐 아니라 흥겨운 사물놀이의 전통가락에 또한 관심을 가져주는 그들이 있어 행복하다.

이러한 행사의 참여는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곳 사람들의 삶을 한자리에 서 깊이 있게, 다양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인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고, 나누고 배울지는 결국 우리들에게 달려있지만 말이다.



## 6. BRGY. Election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다. 지난 25일, 바랑가이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YMCA 멤버 Sur Pangginin의 집에 초대된 우리는 점심식사 후, 바랑가이의 선거풍경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투표일 몇 주 전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은 특이하게 지장을 찍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묻은 잉크가 투표를 했다는 증표가 된다. 때문인지 Sur Pangginin은 자신 있게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보였다.



우리는 투표가 진행중인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우리와 같이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학교는 온통 투표하러 온 사람들과 바랑가이 의회 관계자, Tricycle로 넘쳐났다. 특히 기표가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고해주고 계셨다. 절차는 이렇다. 유권자는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장을 찍어 투표에 참가했음을 증명한다. 그런 다음 용지를 건네 받고,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종료된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기투표자의 이름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와 좀 다른 점은, 투표가 오후 3시에 종료된다는 점이다. 조금 이른감이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오후 2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었는데 약 350여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자신들의 대표를 자신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 대의민주주의에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그 중대한 일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의 티를 조금씩 벗어가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 7. Physical activity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다. 대신 이날은 D.C.C의 앞마당을 가꾸고, YMCA 앞, 체육관이 허물어진 공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양 볼을 미끄럼 타 듯 흐르는 수많은 땀방울들 속에서 노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때문에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만은 그 어느 활동 못



지 않게 ‘파이팅’ 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대낮의 불볕더위 때문에 활동 시간은 정해져 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들은 한국인의 특성상 ‘후딱 해버리고 푹 쉬어버리자’ 주의지만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이 한창 진행되다가도 시간이 되면 멈춘다. 쉬운 예를 들자면, 건물 하나를 짓는 데에 보통 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처리가 꼼꼼한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시켜 주듯, 우리의 작업현장을 보고 나서는 연신 ‘Very good’ 을 외쳐댔다.



우리가 그들보다 일을 더 빨리 잘하고,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이런 습성과는 맞지 않는 이곳 사람들의 방식때문에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약

간의 답답함을 느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들과 친구가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발  
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이들의 습성조차 받아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치더라도 우리들이 여기 있는 5개월 동  
안, 무언가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물을 남기고 싶다면 그건 주제넘  
은 욕심일까?

과연 어떻게 해야, 4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Raonatti 4기가 될 수 있을까?

## 8. Language Class (English)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우리는 영어수업을 갖는다. Speaking과  
Writing 위주로 진행되는 Class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말들을 영어로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Mam josa 선생님 덕분에 영어 울렁증을 극복  
하는데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능을 위해, 토익 점수를 위해 공부했던 영어, 때문에 표현하는 영어에 서툴렀던 우리들은, 누군가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가고 있다. 문법이 틀리더라도, 짧은 단어 몇 개가 대화의 전부라도 일단은 말하고 보는 무대보 정신!! 영어 회화를 처음 배우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니던가?



최근엔 5명 각자 하루씩 날을 정한 다음, 한 주제에 관해 15분간 Speech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의 수업을 시작했다. 사실 매일 동고동락하는 팀원들이지만, 그들 앞에 나가서 그것도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팀원 각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말로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15분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Speech paper를 준비하고, 발음연습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하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Kuya Morito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해 특별히 마련된 Class이니 만큼 성실히 임할 것이다.

## 9. Looking back...

### - Kuya yun

10월 달은 정말 빠르고도 빠르게 지나갔다.

9월 달엔 우리를 알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 왔다면 10월 달은 시작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 만큼은 할 수 없었다. 많은 휴일과 태풍으로 인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다. 태권 댄스와 youth프로그램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시작을 알렸고, 발리 크루즈 뿐만 아닌 다른 곳의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 많은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대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될 것이다. 정말 짧고도 아쉬운 10월, 이 아쉬움을 접고 11월로 다가간다.



## - Ate Bona

어느덧 필리핀 땅을 밟은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우리 한창 생각이 많고 바쁠 시간이다. 두 달 동안 느끼고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남은 세 달의 계획을 세워 바로바로 진행해야 한다. 그 동안 필리핀의 문화와 생활풍습과 음식과 날씨 등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이런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을 풀어나야 한다. 11월에는 Aetas도 가야하고 Homestay도 해야하고 Aurora도 가야한다. 또, Valle cruz의 Youth organization도 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오전에는 valle cruz에서 수업과 physical activity, 오후에는 language class와 tae kwon dance class를 해야 한다. 이런 땀땀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지금처럼 웃음을 잃지 않고 각자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며 힘차게 아자아자! 해나갈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두 달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한국인이라곤 우리 다섯뿐인 이곳에서 언제나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해야 했고, 영어소통능력이 서로 달라서 조금 힘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10월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어서 태풍이 오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폭우와 바람으로 우리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 집에 꼼짝 않고 있어야 할 때도 꽤나 있었다. 처음 한두 번은 일정이 취소되니 모두들 기뻐했지만, 반복이 되다 보니 다들 오히려 축 쳐져서 원래 해야 할 일들마저 기운 빠져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럴 때일수록 다섯이서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했고 이제 태풍이 와도 뚝고 나가자는 기세로 생각을 바꾸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joke를 좋아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잘 웃고 우리보다 조금은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달 동안 벌써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이제 그 친구들과 남은 시간을 정말 뜻 깊게 보내는 일만 남았다. 벌써 다가오는 3개월이 기대가 되고, 점점 어두워지는 나의 피부색처럼 점점 나도 필리피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 - Ate esther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한국에서 느끼는 시간과 분명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바쁨에 치여 살던 한국에서의 두 달은 쳇바퀴 돌던 일상의 반복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냈었겠지만, 이 곳에서의 두 달은 매일 다른 일상들로 인한 신선한 충격과 매일 다른 체험으로 보낸 정신 없던 두 달이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항상 즐거웠었다면, 새로운 체험으로 시간이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깨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지내던 한국생활에 익숙했던 나였기에 이곳에서의 여유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데 힘든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기억하지도 못했던 나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단점에 대해 간과하고 지나갔던 한국 삶과는 달리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팀원들과 지내며 나의 단점과 마주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날도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으나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밖에 지내지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질타하는 시간도 가졌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내가 봉사하러 온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들의 삶이 부정적으로만 변해가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 곳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작은 행복도 크게 보며 그 작은 행복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와서 내가 가장 변한 한가지는, 이 곳에 봉사할 온다면 나는 많은 것을 바꾸고 여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한국에 돌아가고자 했었다. 하지만 내가 이 곳에 온 이유는 도시 전체를 바꾸려고 온 것도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나의 문화 그리고 이들의 문화를 나누고 나눔의 시간 안에 또 다른 나와 이들간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장 돈을 달라고 손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 - Ate Soo

한국은 이제 제법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고 있을 테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10월은 언제나처럼 몸도 마음도 뜨겁기만 하다. 어느덧 이곳에 온지 두 달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새로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 달은 정말 이것저것 정신 없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 후 두 달째, 그래도 이젠 제법 적응했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익숙해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생각들을 이곳의 여유로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 둘 해가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려 하고 있기도 하다. 한가지를 꼽아 이야기 하자면, 예전의 나는 소통, Commun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몸소 느낀 후에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더욱 좋아지기 위해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받아드리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배우고 있다.

또한 이젠 아침에 Valle Cruz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며 주말에는 기다려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문 앞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준다. 밝게 웃으며 Ate Soo를 외치고 안기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며 안아주는 것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아이들이 각자 맛있게 과자를 먹고 있다가도 'Ate Soo' 를 외치며 달려와 수줍게 내미는 손은



언제나 귀엽기만 하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커다란 웃음소리만큼이나 나는 좋다. 앞으로 우리의 파란만장할 11월을 기대하며 이제 10월을 마무리한다.

## - Kuya Min

‘두 번째 징크스’ 라는 말이 있다. 항상 첫 번째는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따라서 더 조심하게 된다. 또한 하고자 하는 열의 또한 가장 높은 시기로, 일에 서툴지언정 절대 나태함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반면 두 번째는 좀 다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적응을 하게 되며,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때문에 알뜰한 술수들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기 마련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두 번째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달랐다. 보고서의 첫 장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있어 10월은 결코 2번째가 아니었다. 새로운 숙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다시 시작한 우리들의 또 다른 이야기다. 또다른 고민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움직였던 또 다른 일기장.

내가 이제껏 가져왔던 생각, 습관들과 이곳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이에서 때론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을 떠올렸다. 나도 모르게 들이댔던 잣대라는 색안경을 가만



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고 해서 억지웃음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웃음을 주려 노력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아직 어색하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줄 때 모든 시름을 내 던져버리다가도, 때론 냉소적인 그들을 보고 한 없이 작아지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곳에서 얻어가고 싶은 경험들, 추억으로 남을 장면장면들과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이 나는 아직 많다.

내일도 나는 Valle cruz로 간다. Kuya min을 기다리고 있을 D.C.C의 아이들이 벌써부터 보고싶어 진다.



걱정 마세요, 저희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